

“建築士界의 意識構造”

慶北支部核心淨化委員 金重培

建築士界의 淨化問題는 昨命을 通하여 實際的인 現況을 감안하여 볼 때 極히 難題中의 宿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近者 淨化運動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汎國民運動으로 國家 百年大計를 위한 國民意識構造의 革命으로 그 事業目的을 昇華시키고 있는 現시점에서 社會의 一角이라고는 하나 우리 建築士界가 예외일 수 없고 同參하는 자체에 合理性을 강구하여 是正의 結果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自부하고 싶다. 우선 建築士界에서 추방시켜야 할 급선무는 似而非建築士의 횡포다. 사실상 建築士界의 癌的인 存在로 알려지고 있는 免許貸與, 名儀貸與, 二重職開設者, 뜨내기 建築士들의 志操없는 行弊, 地域的으로 建築士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요시찰인 物들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면허대여 및 명의대여등의 行위는 建築士로서 自己能力이 限界線에 도달했다는 소치가 아닐 수 없고 二重職으로 事務所를 開設하고 있는 일부 회원의 行爲는 知能計數에서 알약한 눈치 노름으로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뜨내기 建築士란 지방적인 경기를 따라 法을 濫用하면서까지 既設者들의 理解나 謙解도 없이 事務所를 開設하는 가 하면 第三者에게 雇用되어 就業形式을 取하고 月給契約으로 免許貸與를 자행하는者, 事實上 이러한 기형상이 발생함으로서 무모한 덤핑행위가 고개를 들게되고 設計作品이 業界의 秩序를 破壞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良識있는 建築士라면 이러한 底質的인 처신은 취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建築士라는 名分을 갖고 공사간에 無分別한 생활태도는 차체에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建築士가 밀집되어있는 대도시에

서는 잘 浮刻되지 않으나 중소도시 및 군단위에서는 建築士의 數字로보아 公私間의 生活態度가 옳지못하다고 평가됐을 경우에는 자신보다 同僚建築士의 名譽까지를 損像시키는 行爲, 이러한 과범치한 行爲로 말미암아 業界의 秩序를 어지럽히고 있는 似而非建築士들은 應分의 指彈과 아울러 強硬한 膺徵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建築士는 建築人이기 前에 公人으로서 待遇를 받을 수 있는 特殊法人의 한사람이기에 더욱더 처신을 조심해야하고 知性人으로서의 生活風土가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問題는 비단 그 責任이 該當人士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慎重히 돌이켜보면 오늘날까지 建築士界의 意識構造가 虛實面에서 제대로 調整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다. 建築士法이 公布된지 어언 16여년이나 된다. 1963年 12月 16日 法律 第1536號로 公布施行한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建築士界가 걸어온 발자취를 回顧하여보면 實로 파란만장한 기록성취가 허다했거니와 오늘날 國家版圖에서 보여주고있는 國民들의 住居生活環境과 公共建物の 復旧 및 發展的인 環境建築相은 刮目하리만치 長足の 發展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이러한 作品版圖가운데는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創造的인 位置에서 建築本質을 追究하려는 建築士의 作品과 似而非들의 海賦作品등이 그 例로서 다시말해서 代青作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多角的인 面으로 볼때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筆者의 小見을 板展해본다면 建築士界의 意識構造面의 改革은 科學的인 側面에서 診斷이 要請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漸進的인 改善이란 用語들을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 우리 建築士界는 果斷性있는 強力實踐만이 時間的으로 短縮되는 淨化의 改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치 않고서는 淨化란 口頭禪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百年河清格으로 龍頭蛇尾가 되기쉽고 淨化를 先唱하는 實踐者는 獨善의 愚를 犯하기 쉽기 때문에 慎重한 資料分析에서 細審한 計劃과 對應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恒次 建築士界를 말해서 걸보기보다 미약한 業界라고 한다. 그러나 士法 團體中에서 大體的으로 重原性을 認定하기로서는 建築士試驗의 多過的인 試驗科目의 어려움을 認定하기에 그 資格的인 次元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러한데도 不拘하고 一部 물지각한 似而非建築士들의 妄動으로 하여금 全體 建築士들의 體面에 먹칠을 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建築士本然의 品位와 資質을 食言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對應策이란 淨化라는 名分있는 目的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大義의 呼訴를 끝끝내 黠敎하고 似而非行脚을 固執한다면 이는 面駁을 무릅쓰고 서라도 斷平한 措置가 示範的인 判例로 膺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當代의 問題가 아니고 國家的인 次元에서 볼때 그 나라의 文化的 尺度를 評價할 때는 古代는 古代대로 現代는 現代대로 空間藝術의 複合的인 造形創作의 求心的인 建築藝術을 讚美하고 있음은 周和의 事實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建築士들은 一沐의 良識이 있다면 차체에 淨化事業目的에 快히 同參하여 建築士界의 風土를 總和團結하는 前進의 風土를 다같이 힘을 모아 建設하자는데 그 뜻을 解明해 보고자 한다. (*)

※ 似而非建築士는 良識에 呼訴하여 本然의 姿勢로 /